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3.12.17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블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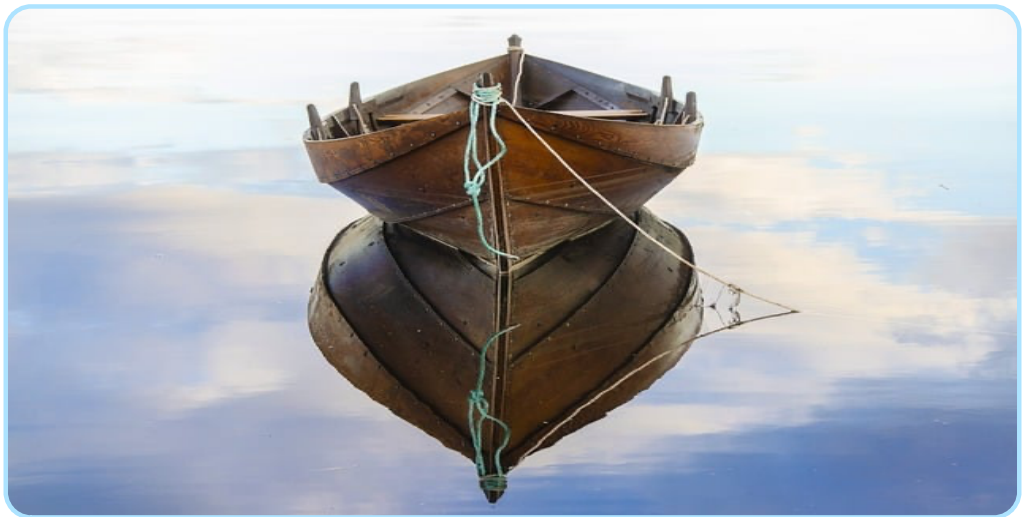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뱃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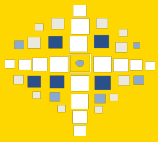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주일에배

오전10:30 커피타임으로 시작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자

입례송.....〈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F A Dm F/C Bb Gm7 Csus
 왕 이 신 나 의 하 나 님 - 내 가 - 주 를 높 이 고 -
 C7 F A Dm F7/C Bb C7 F Bb/F F
 - 영 원 히 주 의 이 름 을 - 송 축 하 리 이 다

성시 교독.....〈대림절〉..... 다같이

(인도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성도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인도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도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인도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성도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인도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도들)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인도자)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성도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다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회 기도.....〈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 <갈라디아서 1:1-10> 다같이

말씀 듣기와 묵상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flat$ D G C F C Dm Gm C³ F

사 랑 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4



1-8 나 바울과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사람들의 합의나 윗사람들의 임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6-9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 메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10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갈1:1-10]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묵상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듣기



감사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Words and Music by Henry Smith

거룩하신 하나님 - 주께 감사드리세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나

의 맘과 뜻 다해 - 주를 사랑합니다 -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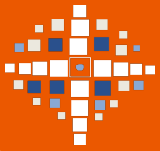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사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사 감사 -



[세종학당 소식]

2학기 개강과 함께 시작한 세종학당도 지난 학기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하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대학으로 유학의 기회를 알선하여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국가발전에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기여했던 것처럼 우간다에 도 인재개발 및 양성이 시급합니다. 쿠미세 종학당 졸업생 중 두 명의 학생이 이미 한동대와 이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대에서 공부를 시작한 피스라는 여학생은 한국학을 전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한-우 양국의 교류 및 협력에 중요한 인재로 자라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종학당은 행정적인 업무의 부담이 커서 함선교사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 일 자체도 중요하고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종학당에 교사가 부족해 현재 함 선교사가 한국어3급 교원양성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느라 많은 무리를 했는데 과정을 잘 마무리 하고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격언을 기억합니다. 일만 하려고 한다면 지쳐 쓰러질 만큼 해결해야 할 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채플에서 새벽기도를 시작된 후 학교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위에 적은 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자님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영삼 함윤숙 선교사 드림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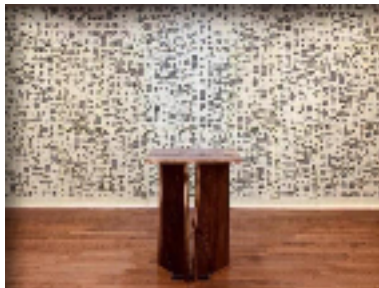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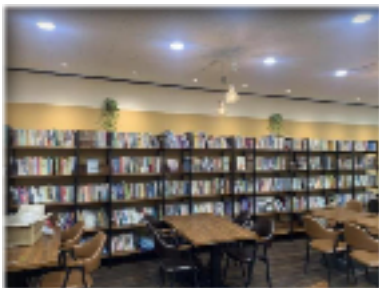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회의 방향성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소식

주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주 설교 권면

오늘 말씀 권면은 이길주 목사님이 2020년 11월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 입니다. 해외사역으로 인해, 대부분 성도들이 듣지 못했던 때의 말씀 권면이어서 편집 하여 함께 나눕니다.

성탄축하 예배, 성만찬

다음 주일은 성탄축하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예배시에 성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수 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식사 섬김

이번 12월 식사 섬김은 이건명-김고은 집사님 가정에서 신청해주셨습니다. 가정에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되길 소망하며 그 기쁨들이 길목교회 공동체안에서 계속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

* 감사한 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4주 식사섬김 신청받습니다.

1주 - 도시락/ 2주 - 라면/ 3주-밀키트/ 4주-성도참여/ 5주-랜덤

* 1월 식사 섬김 - 이춘원,정지혜 집사님 가정

이길주 목사 해외사역 감사

담임목사님이 지난 터키와 이탈리아 사역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그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예배 일정

12월31일 - 오전11시-12시30분: 주일예배 (식사 및 커피토크 없습니다)

12월31일 - 오후9시-11시: 송구영신 모임 / 오후11시-새벽12:30: 송구영신 예배